

Publisher  
토스증권 리서치센터

Analyst  
이영곤 이지선 한상원

Date  
2026.03.17



# GTC LIVE

# It All Starts Here

저희는 지금 실리콘밸리에 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기술 컨퍼런스, GTC(GPU Technology Conference)가 이곳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2009년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GTC는 엔비디아가 주력 제품인 GPU를 홍보하는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AI 반도체,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센터 인프라,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의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하는 행사가 됐습니다. GTC 2026의 슬로건 "It All Starts Here"처럼,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GTC가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이벤트로 여겨지는 이유는, 이날 발표되는 차세대 기술 및 로드맵을 통해 향후 AI 인프라 수요나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 등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젠슨 황이 밝힌 2027년 AI 칩 수요 전망치 '1조 달러'에 현장에서는 "Wow!"가 쏟아졌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약 4.4조 달러 수준으로, 전 세계 1위입니다. 2023년에 시가총액이 1조 달러였으니 약 3년 사이 4배 넘게 뛴 것이죠. 이 같은 시가총액 확대는 실적 성장에 기반한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매출은 약 100%, EPS는 약 200% 증가했습니다(12개월 후행 비교 기준). 경영진 역시 AI 수요와 성장 전망에 대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간 엔비디아의 주가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습니다. 강한 실적은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되었고, 시장은 다음 상승 계기(Catalyst)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이 제기하는 핵심 리스크는 경쟁 심화 및 대안 칩 등장(고객사 자체 칩 개발, 경량화 혹은 맞춤형), AI 투자 사이클 지속 여부(AI 버블), 거시 리스크(대중국 수출, 금리, 지정학적 변수) 등인데요. 이중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영역은 경쟁 심화 및 대안 칩 등장 이슈입니다. 엔비디아가 보유한 기술 격차와 플랫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GTC는 AI라는 거대 성장 산업 내에서 엔비디아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가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성능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성능이 가격 결정력과 높은 마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플랫폼 기반의 락인(lock-in) 구조와 같이 'Next AI 산업' 구도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등을 눈여겨볼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칩, 시스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아우르는 AI 플랫폼 기업으로서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제시하는 차세대 칩 로드맵과 시스템 아키텍처 변화는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GTC 기초연설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Vera Rubin)' 시스템에 탑재될 '그록(Groq) 3 LPU'의 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로 삼성전자를 공식 발표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투자가 필수인 시대,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오래도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낮선 땅에서 담아온 순간들이 투자 여정에 따뜻한 숨결 하나 보태기를 바라며,

2026. 3. 17

토스증권 리서치센터

[Data-1] GTC 2026 행사장에 도착한 토스증권 애널리스트



출처: 토스증권

[Data-2] 올해도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젠슨 황의 기조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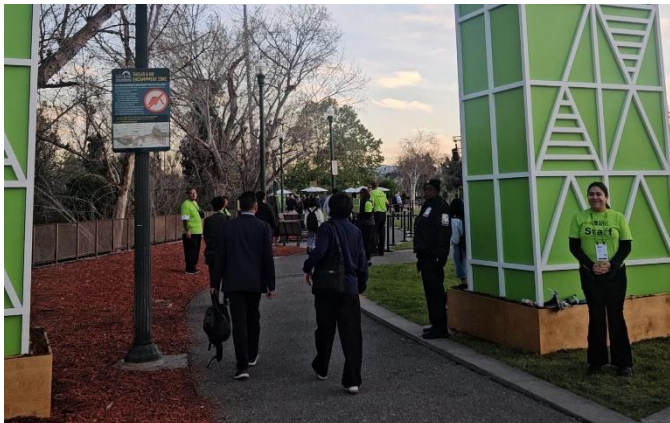
출처: 토스증권

[Data-3] 토스증권 애널리스트 3인의 GTC 출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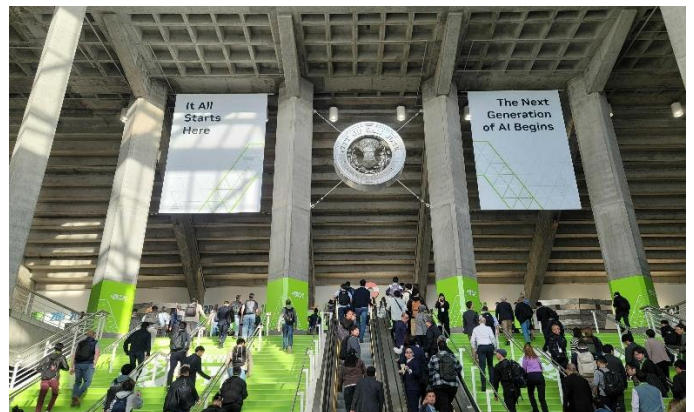
출처: 토스증권

[Data-4] GTC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토스증권 애널리스트



출처: 토스증권

[Data-5] GTC 2026의 슬로건은 "It All Starts Here"



출처: 토스증권

# 1. 토스증권 리서치센터가 주목한 3 가지

젠슨 황의 기조연설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어 약 2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슬라이드에 등장했고 엔비디아의 과거-현재-미래를 책임지는 기술 및 제품들이 차례로 소개됐는데요. 지금부터 토스증권 애널리스트 3인이 주목한 3 가지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 1-a. 큰 함성이 터진 순간, 그리고 모두가 조용해진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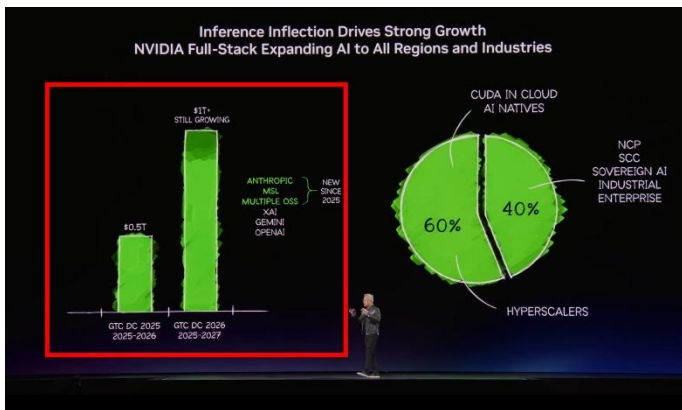
GTC는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빠른 비트의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고, 참석자들도 흥분해 있었습니다. 젠슨 황 CEO도 기조연설 시작부터 “이거 테크 컨퍼런스야”라는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시종일관 약자지컬했던 분위기 속 유독 큰 함성이 터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젠슨 황의 입에서 “1 조(Trillion)”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입니다. 최근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주가 추이에서도 드러나는데요. 2025년 10월 200달러를 넘어서며 고점을 기록한 후 185달러 내외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이어 보여준 강한 실적이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추론 시장이 커질수록 고가의 범용 GPU가 불리하다는 우려도 함께 커졌고요. 그런데 젠슨 황이 2027년 매출 전망치로 1조달러라는 큰 숫자를 내놓은 것입니다. 지난 GTC에서는 2026년 전망치를 5천억달러로 제시했으니, 2배 커진 수치입니다. 젠슨 황은 이를 통해 걱정과 달리 수요가 강하다, 실제로 고객사들의 투자(CAPEX) 흐름도 견고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장내가 일순간 조용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엔비디아 GPU 아키텍처가 순차적으로 소개되며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대가 고조된 순간입니다. 예상대로 다음 세대 제품인 루빈(Rubin)이 소개되고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루빈은 기존 블랙웰 대비 효율이 10배 높아졌으며, 특히 그록(Groq)의 LPU와 결합하면 효율이 35배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추론’을 염두에 두고 AI 사용에 따르는 비용을 크게 낮춘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젠슨 황은 루빈이 1조달러 매출에 기여할 거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루빈에 대한 소개가 끝나자 시작할 때의 조용함과는 달리 참가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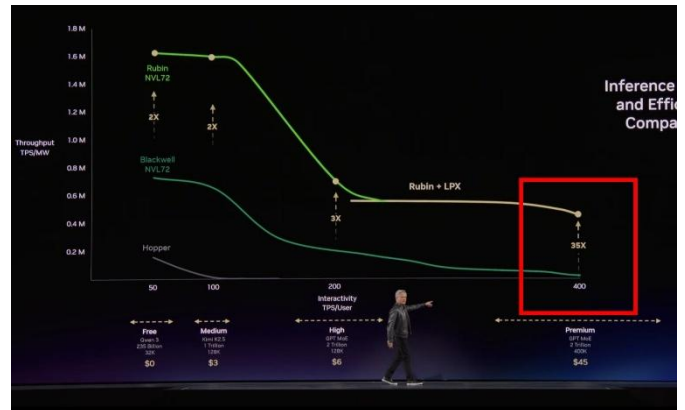
이후에도 젠슨 황은 AI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빠르게 발전했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AI라는 메가 트렌드의 끝을 걱정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는 판단입니다.

[Data-6] 2027년 1조달러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엔비디아



출처: 토스증권

[Data-7] 루빈은 블랙웰 대비 최대 35배 효율 개선



출처: 토스증권

## 1-b. 모든 산업, 모든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인프라 엔비디아

젠슨 황이 기조연설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Everybody works with us.  
산업과 국경을 넘어 거의 모든 기업이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다.
- Nobody but us can build this.  
엔비디아만이 진짜 AI 통합 플랫폼(Vertically Integrated Platform)을 제공할 수 있다.
- Every AI future needs NVIDIA.  
앞으로 등장할 대부분의 AI 기술은 엔비디아 컴퓨팅을 필요로 한다.

사실 이 3가지 메시지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번 기조연설에서 신제품 발표 전 엔비디아의 AI 성장 역사와 생태계를 매우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젠슨 황의 '정면돌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AI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혹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면서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일부 약화될 수 있다는 질문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 엔비디아의 기술 로드맵과 파트너 생태계를 보여주며 정면으로 답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AI는 더 이상 몇몇 소수 대형 기술 기업만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산업이 사용하는 새로운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소규모 AI 스타트업들에도 지난 1년 동안 약 1,500억달러가 투자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회사가 컴퓨팅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기조연설 내내 등장했던 수많은 기업들과 파트너 사례였습니다.**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뿐 아니라 자동차, 제조, 헬스케어, 금융, 로보틱스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슬라이드에 등장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사업이 특정 고객군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매우 넓은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고객뿐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도 언급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언급한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슬라이드에 등장한 수많은 기업 중, 젠슨 황은 삼성전자를 꼭 집어 "I want to thank Samsung"이라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삼성전자(파운드리 사업부)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시스템 '베라 루빈(Vera Rubin)' 플랫폼에 사용될 칩을 생산할 예정이며, 그의 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출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GTC에서 젠슨 황은 엔비디아 생태계가 특정 기업 및 산업에 편중되어 있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와의 협업은 단순 파트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주력 제품의 생산을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이 매우 한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반복적으로 강조된 점은 엔비디아가 단순한 GPU 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GPU 뿐 아니라 CPU,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까지 포함한 AI 전체 스택을 제공하는 'AI 인프라 기업'이라는 거죠. 지금 AI는 더 이상 몇몇 기술 기업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산업과 모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의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다는 점을, 젠슨 황은 이번 GTC에서 길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다시 한번 강조했고 청중들은 이에 환호했습니다.

### 1-c. 여전히 견고한 엔비디아의 플랫폼 지배력: 그록, 네모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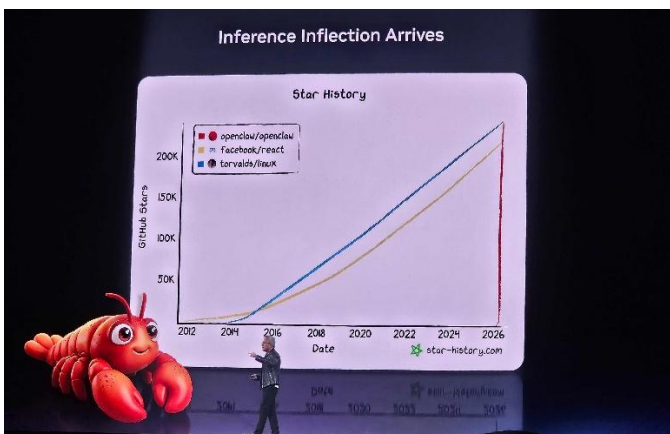
“AI 산업이 학습(Training) 중심에서 추론(Inference)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젠슨 황 CEO가 이번 발표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말입니다. 초기 AI 시장에선 대규모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이 핵심이었지만, 실제 서비스 단계에서는 추론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GPU는 병렬 연산에 강해 AI 학습에는 유리하지만, 지연 시간 최적화와 전력 효율이 더 중요한 추론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록(Groq)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록은 AI 추론 전용 칩 ‘LPU(Language Processing Unit)’를 개발한 회사인데요. 엔비디아는 지연 시간이 짧은 그록의 추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그록과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엔비디아가 학습뿐 아니라 빠르게 커져가고 있는 추론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체 칩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는 구글, 메타의 대응에 맞서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록 기술을 이용하면 고성능 범용 GPU 뿐만 아니라 추론 전용 LPU 까지 엔비디아 제품 안에서 모두 해결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띈 키워드는 ‘AI 에이전트’였습니다. AI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도구에서 벗어나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Agent)’ 형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장이 커질 거라며, 엔비디아의 AI 에이전트 플랫폼 ‘네모클로(NemoClaw)’를 소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강화해 AI 에이전트 개발 및 배포가 엔비디아 생태계 내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엔비디아는 이미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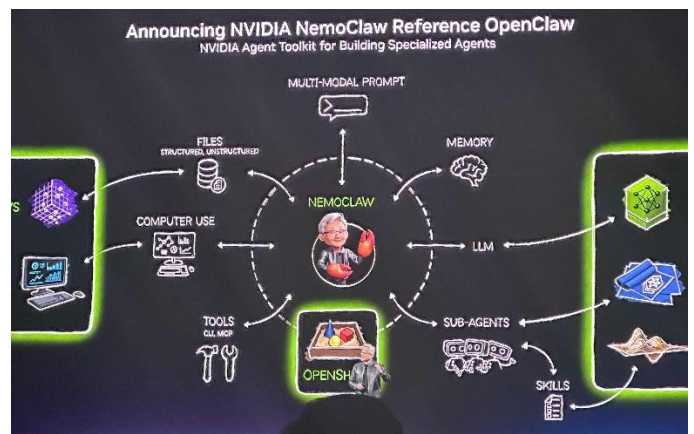
이를 보며 떠올린 건 과거 엔비디아의 CUDA 전략입니다. 엔비디아가 CUDA를 통해 GPU 개발 생태계를 구축했던 것처럼, 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도 소프트웨어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AI 산업 전반에서 구축한 플랫폼 지배력이 앞으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Data-8]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 중인 오픈소스 AI에이전트 플랫폼 ‘오픈클로’



출처: 토스증권

[Data-9] 엔비디아 AI에이전트 플랫폼 ‘네모클로’를 소개하는 젠슨 황 CEO



출처: 토스증권

## 2. GTC History

### 가족자켓 사나이의 말

GTC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단연 행사 첫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기조연설입니다. 그동안 굵직한 발표들이 주로 여기서 나왔는데요. 가령 새로운 GPU 공개나 장기 로드맵에 대한 발표가 이때 이뤄지곤 했습니다. 연도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GTC 2023: AI의 시작

- 챗 GPT 등장 이후 처음 진행된 GTC로, AI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반도체(칩), 시스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등 AI와 관련된 기술 스택 전반을 강조하면서,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대형 고객사들의 인프라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엔비디아 역시 그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 이 때 그레이스 호퍼(Grace Hopper) 기반 플랫폼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AI 모델이 커지면서 CPU와 GPU 사이의 병목이 발생하자 둘을 결합(Grace CPU + Hopper GPU)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학습에 더욱 유리한 결합 구조는 호퍼 이후 모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GTC 2024: AI 인프라

- 2024년에는 새로운 GPU 아키텍처 블랙웰(Blackwell)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존 호퍼(Hopper) 대비 성능과 효율이 크게 개선된 GPU를 선보인 것입니다. 이는 AI 산업의 메인 테마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과도 연관됩니다. 추론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건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학습'은 모델을 만드는 과정으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높은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반면 '추론'은 모델을 사용하는 단계로, 상대적으로 작은 연산을 반복하며 개별적인 요청을 처리합니다. 때문에 무수히 많은 요청을 얼마나 낮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에 엔비디아가 학습과 추론 모두를 위한 차세대 GPU를 내놓은 것입니다.
- 대형 AI 모델을 처리할 수 있게 설계된 블랙웰의 발표는 AI 산업의 중요한 기술 전환점이었습니다. 발표 이후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블랙웰 도입 의사를 밝히며 시장의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블랙웰은 2024년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 [Data-10] 과거 GTC 젠슨 황 키노트 주요 내용 정리

	핵심 내용
2023	AI 시대 선언. 인프라 중요성 강조. AI 관련 전체 기술 스택 전략 공개
2024	AI 컴퓨팅 성능 도약. 블랙웰 발표
2025	AI 전환점 선언. 루빈, 파인만 포함 장기 로드맵 공개

출처: 토스증권

**GTC 2025: AI 확장**

- “AI가 전환점에 도달했다(AI has reached an inflection point).” 기초연설에서 젤슨 황이 한 말입니다. AI가 단순한 규칙을 찾는 것을 넘어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즉 AI의 추론 능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젤슨 황은 높아진 추론 능력을 기반으로 AI 산업이 물리적(Physical AI)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즉, 기존 LLM(대규모 언어 모델) 중심의 생성형 AI를 넘어서 추론 중심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맞춰 2026년 루빈(Rubin), 2028년 파인만(Feynman) 등 차세대 GPU 출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 2025년 행사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블랙웰 울트라 GPU(Blackwell Ultra GPU)도 공개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를 AI 공장(AI factory)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미래의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서버가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가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밖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한 AI 모델과 시뮬레이션 플랫폼 등이 공개되면서, AI 기술이 소프트웨어 영역을 넘어 실제 산업 환경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 3. 엔비디아 GPU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

블랙웰, 루빈, 파인만 등은 엔비디아의 GPU 아키텍처 세대를 구분하는 명칭입니다.

GPU 아키텍처(architecture)란, 반도체의 내부 설계 구조입니다. 엔비디아는 약 2~3년 주기로 성능과 효율을 개선하고 새로운 AI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GPU 아키텍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유명 과학자에서 따온 것입니다. 아키텍처의 변화는 단순한 성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AI 컴퓨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기술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블랙웰(Blackwell)**은 2024년 3월 GTC에서 공식 발표된 후 현재 AI 데이터센터 시장의 핵심 아키텍처로 쓰이고 있습니다. 블랙웰은 직전 모델에 비해 대형 AI 모델을 처리하기 위한 성능과 메모리 대역폭이 강화되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나 생성형 AI는 수천억~수조개의 파라미터<sup>1</sup>를 가지기 때문에 막대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블랙웰은 이러한 대형 모델을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실행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여러 개의 GPU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하는 고속 인터커넥트(NVLink) 기술도 강화되었습니다.
- 루빈(Vera Rubin)**은 블랙웰의 후속 세대 GPU 아키텍처로, 2025년 GTC에서 상세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루빈은 단일 GPU가 아니라 CPU, GPU, 네트워크, 보안, 메모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아키텍처로,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AI 모델이 커지면서 수천 개 이상의 GPU를 연결해 학습을 수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루빈은 이러한 대형 AI 모델과 초대형 데이터센터 환경에 적합한 아키텍처라 할 수 있습니다.
- 파인만(Feynman)**은 2025년 GTC에서 로드맵 형태로 공개되었습니다. 파인만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는 방향이 강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력 효율, 메모리 구조, AI 연산 정밀도 등 다양한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전력 소비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과 대규모 시스템 운영 능력이 중요한데요. 파인만은 차세대 AI 인프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술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Data-11] 엔비디아 GPU 아키텍처는 과학자 이름에서 따온다

아키텍처	과학자	업적
호퍼(Hopper)	Grace Hopper	초기 프로그래밍 언어 발전에 기여
블랙웰(Blackwell)	David Blackwell	확률적 의사결정 이론 분야의 선구자
루빈(Rubin)	Vera Rubin	암흑물질의 존재를 입증한 천문학자
파인만(Feynman)	Richard Feynman	양자전기학 정립 및 단순한 모델로 혁신적 접근

출처: 엔비디아, 토스증권

1 AI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조정하는 수많은 숫자 값이며, AI가 지식을 저장하고 판단을 내리는 핵심 요소.

## 다음 리포트 예고 – GTC 2026

이번 <GTC 2026 LIVE> 리포트에서는,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를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 전달해 드렸는데요.

다음 <GTC 2026 Deep Dive> 리포트에서는, GTC 2026 현장에서 얻은 인사이트와 투자 이야기를 엔비디아와 관련 기업, 주요 기술을 중심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 Compliance Note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의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에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